

研究論文

임란 이후 해행(海行)에 대한 당대의 시각

통신사를 보내는 문집 소재 송서(送序)를 중심으로

안대회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 교수, 한국한문학 전공

ahnhoi@naver.com

- I. 머리말
- II. 해행(海行) 관련 자료와 해행에 대한 시각의 차이
- III. 특별한 원유(遠遊)로서의 해행
- IV. 적대적 시각: 감정적 대응과 복수설치(復讐雪恥)의 의식
- V. 일본과의 화해와 문명적 접근
- VI. 맺음말

I. 머리말

근현대 이전 한국 사회에서 외국을 보는 시각에는 일정하게 전개되는 큰 흐름이 있다. 시대와 당파, 지역과 신분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에는 고착화되고 집단화된 경향이 나타난다. 그 시각은 외교와 무역에도, 문화와 사람의 교류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명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일본과 서양에 대한 조선시대 지식인의 인식과 태도를 정치와 사회,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가운데 일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조선의 외교와 정치,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적 변수의 하나다.

조선왕조는 건국 이후부터 임란 중인 1596년까지 모두 69회에 걸쳐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유지되던 외교관계가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일방적으로 침략함으로써 무참히 깨졌다. 임란은 조선과 명, 조선과 일본의 외교와 정치를 재설정하게 만들면서 일본에 대한 조선의 인식과 태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일본과 다시 국교를 재개한 이후 근대적 외교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조선은 12회에 걸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의 수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하나 양국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일본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주제인 만큼 그에 대한 학계의 논의도 풍성하다. 현재 학계에서는 통신사를 보내는 과정에서 신출된 외교문서와 사행록, 필담창화록, 시문을 대상으로 비중 있는 외교관·학자나 당파가 보인 대외인식을 조명한 연구가 많이 나와 있다.¹⁾ 이 사료가 입수와 파악이 손쉬운 요인도 있고,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반면 일본에 가는 통신사 사절단을 보내는 당시 관료와 지식인은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분석한 연구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전통시대에 외국으로 가는 사절단 구성원은 대단히 드문 장기 여행의 기회를 잡는 것이므로 그 여행을 기념하는 글을 친지나 저명한 문사에게

1)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혜안, 2006);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지성의 샘, 1994); 三宅英利, 『근세일본과 조선통신사』(경인문화사, 1994).

받는 것이 관례였다. 중국보다도 일본을 여행하는 것은 더 흔하지 않은 경험이었으므로 자연히 적지 않은 시문을 쓰게 되어 있다. 여행을 기념하는 글은 대체로 시와 산문으로 구성되고, 산문은 대체로 송서(送序)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송서에는 정연한 논리를 갖춘 논설문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통신사와 일본을 보는 시각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송서의 지은이는 대부분 당시 사회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명사들이었다. 따라서 송서는 사절단 구성원이 보인 시각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도 사행을 보는 여론과 여론을 주도하는 명사의 고유한 시각이 제시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송서는 직접적인 사행단의 다양한 기록보다 더 뚜렷한 주장이 담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송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의의가 매우 크다.

이 글에서는 송서란 문체를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대외인식의 주요한 내용과 그 시대적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으로 가는 사절단의 공식 명칭은 사행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통신사(通信使)로 불렸다. 다만 일본 사행은 바다를 건너야 하는 여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흔히 해행(海行)이란 용어로 불렸고, 이를 반영하여 사행록 송서도 『해행총재(海行摠載)』라 불렸다. 여기서는 북경에 가는 사행을 연행(燕行)이라 부른 관행에 맞춰 해행이란 이름으로 통신사 사행을 부른다.

II. 해행(海行) 관련 자료와 해행에 대한 시각의 차이

임란이 발생한 이후 열두 번에 걸쳐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논지의 전개를 위해 통신사의 기본적인 사실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1. 문집 소재 송서(送序)의 자료적 가치

12차의 통신사는 매년 거의 두세 차례 갔다 온 연행(燕行)의 수효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횡수가 적은 만큼 한 차례 해행마다 주요한 기록들을 다수 생산하였다. 해행에 참여한 문사들이 기록해놓

2) 李元植, 『朝鮮通信使』(민음사, 1991, 39-40쪽)에 수록된 일람표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표-조선 후기 통신사 일람²⁾

| 번호 | 과견 시기 | 명칭 | 사신명 (正使, 副使, 從事官 等) | 목적 | 비고 |
|----|--------------|------------|---------------------------|---------------|--|
| 1 | 1607. 2(丁未) | 回答兼 刷還使 | 呂祐吉, 慶暹, 丁好寬 | 修好, 피로인 쇄환 | 慶暹 『海槎錄』 |
| 2 | 1617. 7(丁巳) | 回答兼 刷還使 | 吳允謙, 朴棨, 李景稷 | 大阪平定 | 李景稷 『扶桑錄』 |
| 3 | 1624. 10(甲子) | 回答使 | 鄭崐, 姜弘重, 辛啓榮 | 家光 襲職 | 姜弘重 『東槎錄』 |
| 4 | 1636. 10(丙子) | 通信使 | 任統, 金世濂, 黃稔 | 太平 축하 | 任統 『丙子日本日記』, 金世濂 『東槎日錄』 |
| 5 | 1643. 4(癸未) | 通信使 | 尹順之, 趙綱, 申濡 | 家綱 出生 | 趙綱 『東槎錄』, 申濡 『海槎錄』, 작자미상 『癸未東槎日記』 |
| 6 | 1655. 6(乙未) | 通信使 | 趙珩, 柳瑒, 南龍翼 | 家綱 습직 | 南龍翼 『扶桑錄』 |
| 7 | 1682. 6(壬戌) | 通信使 | 尹趾完, 李彥綱, 朴慶後 | 綱吉 습직 | 洪禹載 『東槎錄』, 金譯士 『東槎日錄』 |
| 8 | 1711. 7(辛卯) | 通信使 | 趙泰億, 任守幹, 李邦彥 | 家宣 습직 | 趙泰億 『東槎錄』 |
| 9 | 1719. 6(己亥) | 通信使 | 洪致中, 黃璿, 李明彥 | 吉宗 습직 | 申維翰 『海遊錄』 |
| 10 | 1748. 2(戊辰) | 通信使 | 洪啓禧, 南泰耆, 趙命采 | 家重 습직 | 趙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
| 11 | 1763. 8(癸未) | 通信使 | 趙曦, 李仁培, 金相翊 | 家治 습직 | 趙曦 『海槎日記』, 元重學 『和國志』, 成大中 『日本錄』, 南玉 『日觀錄』, 金仁謙 『日東壯遊歌』 |
| 12 | 1811. 윤3(辛未) | 通信使 | 金履喬, 李勉求 | 家齊 습직 | |

은 여행기는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중요한 자료는 홍계희(洪啓禧)와 서명응(徐命膺)이 『해행총재(海行摠載)』로 정리하였다. 이 총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록』과 『화국지』를 비롯한 해행록(海行錄)도 다수 전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과 일본 등지에는 양국 사신과 지식인들이 주고받은 필담(筆談) 자료가 풍부하다. 현재 필담 자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³⁾

다음으로 눈여겨볼 대상은 시문(詩文)이다. 문학작품은 해행록 자료에서도 주요한 구성요소다. 그런데 해행 참여자의 시문집에는 해행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한 양의 자료가 남아 있다. 이 시문 자료도 최근

3) 최근 연구로는 구지현·김형태·허경진에 의해 보고서에서 2011년에 출간된 『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 연구총서』 5권이 대표적이다.

들어 연구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아직 연구자의 관심 밖에 있는 자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행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의 문집에 실린 문헌인데 그 하나가 송서나 송시(送詩)처럼 사절단을 보내느라 지은 산문과 시다. 그 같은 송서나 송시를 모은 작품집을 별장첩(別章帖) 또는 신장(驢章)이라 부르는데 「일본에 사신으로 가는 박재를 보내는 서첩(送朴梓奉使日本序帖)」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서첩은 유몽인(柳夢寅) 등 29명이 1617년 일본에 가는 박재(朴梓)를 배웅하고자 준 시문을 엮은 것이다. 또한 1636년 정사 임광(任統)에게 준 시를 후손이 모은 『동사시(東槎詩)』 1책이 전하고, 1711년 부사로 간 임수간(任守幹)을 보내며 만든 신장첩(驢章帖)⁴⁾이 있다. 이봉환(李鳳煥)이 정사로 내정된 서명응을 찾아가 보았을 때 서명응은 별장첩을 내어보였는데 거기에는 그를 보내는 시와 문장이 수백 편에서 천 편에 이르렀다.⁵⁾ 이 별장첩은 소재가 밝혀져 있지 않다. 이렇게 통신사로 가는 사절단 구성원에게 준 시와 문장은 그 수가 적지 않다.

이런 유형의 시문에서 시가 보내는 이의 감정을 주로 드러낸다면, 산문은 보내는 이의 생각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송서는 해행의 의의와 사신의 임무, 그리고 해행을 보는 작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밝혔다. 가는 이와 보내는 이의 주장과 시각을 논리적으로 선명하게 전개하고 있어, 글이 쓰인 시대의 개인과 집단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큰 틀에서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이다.⁶⁾ 따라서 조선 후기 지식인의 일본인식을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내는 송서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송서에 드러난 일본인식

통신사를 보낼 때 임란 이후 지식인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763년 통신사 정사로 내정된 서명응을 보내며 쓴 이봉환의 송서를

4) 그 가운데 후자는 최근에 한태문이 「조선 후기 通信使의 驢章 연구—<遼窩府君日本使行時驢章>을 중심으로」(『어문연구』 73집, 어문연구학회, 2012)를 발표하여 분석했으나 미처 논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5) 李鳳煥, 『雨念齋詩鈔』 권7, 「送徐參議命膺之日本序」, 국립중앙도서관 장서.

6) 안대회, 「조선 후기 燕行을 보는 세 가지 시선—燕行使를 보내는 送序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9호(2010), 87-121쪽.

통해 대략적인 반응을 검토해보자. 이봉환은 서명응을 찾아가 수백 편에 달하는 송서와 송시를 일일이 읽어보고 그 성대한 규모에 놀라며 “도하(都下)의 문헌이 여기에 모조리 담겨 있다”⁷⁾고 말하고서 별장첩의 내용 전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내가 찾아가 공을 뵈고 별장첩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공이 모두 앞에 펼쳐놓았다.

- (1) 사행을 떠난 이를 위로한 것이 열에 다섯이었다. 나는 “아름답도다! 네 마리 말을 탄 옛 사신의 유풍입니다”라 하였다.
- (2) 풍토와 지리를 서술한 것이 남은 다섯 가운데 셋이었다. 나는 “넓도다! 직방(職方)을 관할한 옛 사신의 모습입니다”라 하였다.
- (3) 그 가운데 누군가 “저들에게 진나라 때 불태워지지 않고 서복(徐福)이 가져왔다는 고문(古文)으로 된 경서가 남아 있다고 하니 그것을 찾아오지 않으렵니까?”라 하였다. 나는 “원대하도다! 구양수(歐陽脩) 이래로 이런 말이 있었으나 건강부회일 뿐이지요 서복이 갔다는 말도 믿기 어려운데 경서야 어떻겠습니까?”라 하였다.
- (4) 어떤 사람은 “임진년 전란에 저들은 뱀과 돼지처럼 쳐들어와 우리 대동(大東)의 두 왕릉이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백 세대의 원수입니다”라 하였다. 나는 “분노가 치입니다! 지사와 충신들이 원한을 품은 지가 이제 200년입니다. 그러나 강화를 맺었으니 폐물로 우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원씨(源氏)는 옛날의 평씨(平氏)가 아닙니다”라 하였다.
- (5) 어떤 사람은 “바다의 국경이 맑고 고요한 지 오래지만 천하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속임수와 간사함을 갖가지로 부리지만 명철한 사람이 염탐해야 할 (재침의) 조짐이 없겠는지요?”라 하였다. 나는 “생각이 깊군요! 이는 춘추시대에 사대부들이 능숙하게 하던 일입니다. 그러나 66개 고을이 제각기 부귀를 쌓으려고 애쓰는 중이니 어떻게 원대한 뜻을 두겠습니까? 저도 저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걱정할 우려가 없음을 또렷이 보았습니다”라 하였다.
- (6) 어떤 사람은 “이 나라는 유학을 배척하고 불교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서(詩書)의 가르침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저들에게 이등유정(伊藤維貞)의 무리가 있어 정주(程朱)를 헐뜯고 배척하므로 더욱이 시원스럽게 물리쳐야 합니다”라 하였다. 나는 “넓습니다! 도학을 밝게 펼치는 사람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극성은 중국의 성대한 문물로도 점차 젖어들어 되돌리지 못하여 거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한 해를 걸려도 그 주장을 다

7) 李鳳煥, 앞의 글. “某抗手曰：盛矣！都下之文獻，盡在是矣。”

펼치지 못할 지경인데 허물며 돛배를 타고 건너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녀오고
 마니 어찌 사신들의 짧은 대화로 그들의 미혹됨을 깨우칠 수 있겠는지요?
 게다가 육왕(陸王)의 서책도 미처 불태우지 못했습니다. 이등유정의 무리쯤
 이야 굳이 없앨 필요까지 있겠습니까?”라 하였다.⁸⁾

이봉환은 수많은 별장첩의 내용을 두루 점검하여 그 내용을 여섯
 가지로 개괄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별장첩에서 다양한
 시각을 읽어낸 이봉환의 사례는 왜 우리가 송서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일본을 보는 다양하고도 진지한 시선을 추출하여
 정리했는데, 그의 언급은 해행을 보는 당대인의 시각을 명료하게 이해시
 켜준다. 여행을 위문하는 내용이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풍토와 지리의
 서술이 나머지 절반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분석은 별장시(別章詩)의
 성격에 부합하는 결론이다.

그 나머지 내용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네 가지다. 첫째, 일본에는
 중국에서 사라진 옛 경서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찾아보라는
 당부가 있고, 둘째, 일본은 아무리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원수라는 증오의 표출이 있으며, 셋째, 일본의 재침략에 대한 우려와
 넷째, 일본을 무(武)에서 문(文)으로, 불교에서 유학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 네 가지는 하나하나가 통신사 사절단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송서에서 거듭 제기되는 문제였다. 특히, 별장첩의
 대다수를 점하는 안부와 풍토에 관한 관심이 주로 시라는 갈래로 접근할
 주제라면 이 네 가지는 논쟁적이고 설명을 필요로 하는 주제라서 송서라
 는 산문에 어울린다. 이봉환은 그런 문제에 대해 일본에 다녀온 유경험자
 로서 선린관계에 비중을 두어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8) 李鳳煥, 앞의 글. “某往謁公, 請觀焉, 公悉諭之. 盖慰勞行役自, 十之五, 某曰: ‘美哉! 四牡
 皇華之遺也.’ 敘述風壤者, 五之三, 某曰: ‘博哉! 職方輜軒之餘也.’ 就其中, 或有曰: ‘彼有古
 文經籍, 未經秦燒, 徐福所將去者, 盍求之?’ 某曰: ‘遠哉! 自歐陽脩已有是說. 然抑傳會已.
 福之去未可信, 矧經乎?’ 或有曰: ‘壬辰之役, 彼爲蛇豕荐食, 我大東二陵蒙恥, 此百世讐也.’
 某曰: ‘愴矣! 志士忠臣之含怨茹痛, 今二百年所. 然既媾矣, 無奈乎金幣之通其好也. 且今之
 源, 非昔之平也.’ 或有曰: ‘海疆之清謐久矣, 天下事未可知. 雖彼譎詐萬端, 明者豈無可覘之
 機乎?’ 某曰: ‘思深哉! 此春秋時行人大夫所媿也. 然六十六州之自豢其富貴稔矣. 夫豈有遠
 志哉? 亦管測之矣. 灼見其無可憂也.’ 或有曰: ‘之國左儒而右佛, 盖以我詩書之教化之, 且
 彼儒伊藤維貞之徒, 詆斥程朱, 尤宜關之廓如也.’ 某曰: ‘弘哉! 昌明道學者之任也. 然異端之
 熾, 雖以中國之聲明文物, 浸淫而不返者殆半之, 當年不能窮其說. 況帆風所躡, 瞬息一過,
 豈立談之間, 可以隔其迷哉? 且陸王之書, 未之火也, 如維貞之徒耳, 亦何誅也.’”

3. 임란 전후 해행을 보는 시각의 변화

위에서 이봉환이 정리한 시각이 조선 전기의 시각을 이어받은 결과일까? 그렇지 않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임란을 기점으로 시각의 큰 변화가 전개되고 그것이 이후 시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이었다. 조선왕조에서는 국초부터 선조 32년까지 대략 69회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으나 감정적인 대응이 주도했던 것만은 아니다.⁹⁾ 송서를 놓고 봐도 적대적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조선 후기보다도 많았던 사절단에 비해 현재 남아 있는 송서는 몇 편 되지 않으나 남아 있는 글과 기타 사행시문의 서발(序跋)을 보면 일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그와 같은 시각을 지닌 대표적인 지식인이 권근(權近)과 서거정(徐居正), 그리고 신숙주(申叔舟)와 김안국(金安國)이다. 그 가운데 권근과 서거정은 일본에 벼슬 보내는 서문을 직접 썼다.

대저 일본은 천지의 맨 동쪽에 있으니 곧 천지가 만물을 내는 방위이다. 그들도 천부적으로 천지의 마음을 얻어 인간 본성의 어둠을 지녔으니 천하 사방 사람과 똑같다.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다면 그들도 반드시 측은한 마음이 생겨 구출하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죄 없는 사람이 칼날에 죽어가서 구렁텅이에 뒹구는 것을 차마 그대로 보겠는가? 아! 어진 사람은 천지 만물을 한 몸으로 보고 사해(四海) 사람을 형제로 여긴다. 비록 바다와 산으로 막히고 강토가 달라 말이 틀리고 풍속이 달라도 같은 인류(人類)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¹⁰⁾

일본은 동쪽에 처한 나라로 천지의 으뜸(元)과 봄(春)과 어둠(仁)의 기운을 받아 풍속이 순박하고 예스러우며, 선(善)을 좋아하고 의(義)를 즐기므로 더불어 일을 할 만하다. 지금은 우리와 우호를 닦아 한집안과 같다. 소문을 듣고서 여러

9) 한명기, 「15-17世紀朝鮮知識人たちの日本認識概観」, 『鏡の中の自己認識—日本と韓國の歴史・文化・未來』(東京: 御茶の水書房, 2012).

10) 권근, 『陽村集』 권17, 「送密陽朴先生敦之奉使日本序」, 문집총간 7집. “夫日本在天地之極東, 卽天地生物之方也. 其人之生, 得天地之心, 以爲吾性之仁者, 亦與四方之人均矣. 其見赤子匍匐而入井, 亦必有惻隱之發, 以思其救. 況可忍視無辜之民死於鋒鏑, 轉於溝壑也哉? 吁! 仁人之心, 以天地萬物爲一體, 四海爲兄弟. 故雖隔海岳, 異疆域, 音殊俗別, 而其爲人同類, 則其相愛必矣.”

섬들이 서로 이끌고 진심으로 귀부(歸附)하여 사신의 배가 내지(內地)처럼 왕래한다. 가기를 원해도 가지 못하는 선비들도 있는데 이공(李公)이 기회를 얻었으니 어찌 떨 듯이 기뻐하지 않겠는가!¹¹⁾

첫 번째는 1397년 일본 해적을 막으려는 임무를 띠고 일본에 가는 박돈지(朴敦之, 1342-?)를 보내며 쓴 글이다.¹²⁾ 일본 사람도 인간 본연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 포로를 돌려줄 것이라고 신뢰감을 표현하였다. 사신으로 가서 그들이 이제부터 갑옷과 투구를 의관으로 바꾸고, 활과 칼을 옥백(玉帛)으로 대신하며, 완악한 흉도가 선량해지기를 기대하였다. 최종적으로 이웃 나라 사이의 정의를 다져서 두 나라 백성이 편히 사는 관계를 예상하였다.¹³⁾

서거정은 1479년 정사 이형원(李亨元, ?-1479)을 보내며 쓴 글에서 권근보다도 더 우호적인 생각을 펼쳤다. 일본을 한집안처럼 생각하고 내지처럼 오간다고 하였다. 게다가 일본에 사신이 되어 가고 싶어 하는 사대부들이 많아 원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실제로 15세기에는 일본인에 대한 조선의 태도와 인식은 비교적 유연했다.¹⁴⁾ 권근과 서거정의 글은 일본인을 대하는 유연한 자세와 우호적 분위기가 조선 전기에는 지속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런 시각은 이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첨(李詹), 박서생(朴瑞生), 신숙주, 김종직(金宗直), 김안국을 비롯한 사대부들은 일본을 교린의 교의 상대로 간주하여 우호를 다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¹⁵⁾ 박서생은 합리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일본 문물을 탐색하고 수입할 것을 주장하였고¹⁶⁾, 김안국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일본을 이적(夷狄)으로 규정짓고 깔보는 태도를 경계하였다.¹⁷⁾ 조선 전기에는 일본과 일본인에

11) 徐居正, 『四佳文集』 권5, 「送李直提學可行奉使日本詩序」, 문집총간 11집. “其國處東, 稟天地之元之春之仁之氣, 風俗淳古, 好善樂義, 可與有爲也. 今則與我脩好, 有同一家, 諸島聞風, 亦相率款附, 使船來往, 有同內地. 士有願行而不得者, 俟先得之, 豈不躍然以喜也哉!”

12) 박돈지가 일본에 간 것은 『세종실록』에는 1401년으로 되어 있다.

13) 권근, 앞의 글.

14) 한명기, 앞의 글.

15) 이종목, 「朝鮮前期韓日文士の文學交流の様相について」, 『朝鮮學報』 82호(朝鮮學會, 2002), 121-155쪽.

16) 한태문, 「戊申通信使(1428)와 朴瑞生」, 『열상고전연구』 제29집(2009), 139-168쪽; 장필기, 「조선 초기 栗亭 朴瑞生の 학문적 기반과 현실 대응」, 『韓國學論叢』 34집(2010), 651-674쪽.

17) 손유경, 「慕齋 金安國의 對日認識」, 『漢文古典研究』 19집(2009), 31-53쪽.

대한 멸시와 증오감을 표현한 지식인들 역시 적지 않았기에¹⁸⁾ 대일인식을 단조롭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감정적 대응을 넘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우호적 감정을 표시하는 지식인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적대감과 우호감이 섞여 있던 일본에 대한 시각은 임란을 기점으로 하여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로 보는 시각이 고착화되었다. 자연스럽게 적대적 시각이 압도하여 일본인을 개와 돼지로 야만시하고, 일본을 가지 못할 더러운 땅으로 간주하였다. 전쟁 중이던 1596년에 서장관 박홍장(朴弘長)을 보내는 송서에서부터 태도는 급변하여¹⁹⁾ 일본과 연관되는 모든 것은 증오감으로 차 있다. 일본인은 침략자와 약탈자로서 고정관념화되었는데²⁰⁾ 그 관점은 새로운 외교관계가 맺어지는 구한말까지 조선 사람에게서 내면화되어 있었다.

III. 특별한 원유(遠遊)로서의 해행

임란 이후 해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니 거의 전 시기를 거쳐 마음이 몹시 편치 않아 부담스러운 여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가는 공식적인 여행은 중국과 일본뿐이고, 특히 일본은 기회가 적어서 해행은 선택된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였다. 조선시대 거의 전 시기에 중국을 다녀오는 기회를 얻으려는 열망이 존재했듯이 서거정의 말대로 해행도 서로 경쟁 대상이 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중국은 청나라에 항복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은 임란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고 싶지 않은 나라로 치부되었다. “대저 바다를 건너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일본에 사신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위태롭다. 위험함을 두려워하고 위태로움을 꺼려서 교묘히 피하고 요행히 모면하려는 사람들이 대다수다”²¹⁾라고 해행을 보는 것이 상식이였다. 여행의 위험함과 외교

18) 이채연, 「조선 전기 대일사행문학에 나타는 일본인식」, 『한국문학논총』 18집(1996), 3-25쪽.

19) 崔暉, 『訥齋集』 권10, 「送朴大丘弘長奉使日本序」, 문집총간 67집.

20) 하우봉, 앞의 책, 178쪽.

21) 朴泰漢, 『朴正字遺稿』 권11, 「送尹參議趾完赴日本序」, 문집총간 55집. “夫涉海至險也, 使日本至危也, 人之畏其險而憚其危, 巧避而倖免者, 滔滔也.”

상대의 간교함을 핑계로 내세워 보내는 이도 가는 이도 해행이 기피해야 할 여행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태도는 당연히 행선지 자체의 문제보다 의식적인 측면이 강하게 투영된 결과다. 해행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도 행운도 아니라 가지 못할 오랑캐 땅에 간다는 의식적 터부가 앞섰다. 그런데 송서에서는 여행 자체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일부에서는 특별한 원유(遠遊)임을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나마 해행에서 기대할 장점은 남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바다 여행과 일본의 산수를 구경하는 특별한 체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의 두 가지 글을 살펴보자.

나는 이에 술잔과 술병을 잡고서 한두 친구와 함께 술잔을 들어 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여행은 통쾌하지 않은가? 자네의 놀이는 장엄하지 않은가? 한 나라를 노니는 것도 부족하게 여겨 국경을 넘어 중국의 수도에 노닐었고, 중국의 수도에 노니는 것도 부족하게 여겨 깊은 바다를 건너 바다 밖으로 노닌다. 가진 힘을 다해 국사에 전념하는 몸이면서도 천하의 장관을 모두 보게 됐네.”²²⁾

최북이 내게 배웅의 말을 부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임무는 나라의 명이므로 의리상 감히 사양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좁은 땅덩어리에 태어난 사람이라, 본 것은 수백 리에 불과하고, 올라가서 조망하여 흥금을 넓힐 만한 높은 산과 큰 강이 없습니다. 제아무리 제자백가의 책을 두루 본다 한들 옛사람의 진부한 자취에 불과하므로 지기(志氣)를 격동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현실에 골몰할까 염려되어 결연히 떨치고 가려 합니다. 장차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가서 천하의 기문(奇聞)과 장관을 보고 천지가 넓고 크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답했다. “일본에는 화려하고 기이한 경관이 많다고 일찍부터 들어왔네. 칠칠(七七, 최북의 자)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니 조물주가 화려하고 기이한 경관을 만들어놓고 재주가 많은 자네에게 한번 구경시켜 줄 테니 참으로 천고의 통쾌한 일일세.”²³⁾

22) 曹文秀, 『雪汀集』 권4, 「送呂僉知祐吉奉使日本」, 문집총간 15집. “余於是提壺挈榼, 與一二同志, 舉杯以屬之曰: ‘子之行也, 不其快歟; 子之遊也, 不其壯歟! 以一國之游爲不足, 越封疆而遊上都; 以上國之游爲不足, 越重溟而游海外. 身不離於盡瘁之中, 而天下壯觀畢矣.’”

23) 李玄煥, 『蟾窩雜著』, 「送崔北七七之日本序」, 『近畿實學淵源諸賢集』 6(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崔北)請贖於余曰: ‘是任也, 國之命, 義固不敢辭. 且人生於偏壤, 所見不過數百里之間, 無高山大川可登眺而自廣其心胸, 諸子百家之書, 雖或徧覽, 不過古人之陳跡, 亦不足以激發其志氣. 恐遂汨沒, 決然捨去, 將欲浮海而東, 求天下奇聞壯觀, 以知天地之廣大而歸焉.’ 余曰: ‘夙聞搏桑, 亦多瓊詭觀. 七七抱才者, 造化兒設瓊詭觀, 與抱才者一觀, 固千古快事.’”

첫 번째 인용문은 1607년 여우길(呂祐吉)을 보내면서 조문수(曹文秀)가 격려한 말이고, 두 번째는 18세기의 저명한 화가 최북(崔北)을 통신사 수행화가로 보내며 이현환(李玄煥, 1713-1772)이 쓴 송서다. 임란이 끝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우길은 모두가 기피하는 해행을 스스로 지원하였다. 그 이유의 하나가 바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여행, 곧 기유(奇遊)였다. 조선 팔도와 중국의 북경은 이미 여행한 처지에 일본까지 구경한다면 조선 사람으로서는 가장 많은 곳을 체험하므로 이는 하늘이 자기에게 베푼 선물이라는 논리다.²⁴⁾ 그도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심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기는 하나 이웃 나라와 선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사행의 의의를 분명 인정한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사행의 주된 목적을 장독에 모기가 꼬이듯 사는 한계를 벗어나 넓은 천지, 광대한 천하를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에 두고 있다.²⁵⁾

여우길의 해행을 두고 조문수와 이호민이 펼친 논지에서는 임란 이전 시기에 해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유지되고 있다. 임란 직후라 서 오히려 적개심과 분노가 더 강하게 표출되리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이다. 임란 직후에 탐적사로 가는 사명대사를 보낼 때 유몽인은 장현시 <바다를 건너 대마도로 들어가는 송운대사 유정을 배웅하며(送松雲大師惟政渡海入對馬島)>²⁶⁾를 지어 바쳤는데 그 시에도 낮선 풍경을 체험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라는 사신의 임무를 강조할 뿐 적개심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인용문은 화가에게 준 송서다. 최북은 1748년 무진년(戊辰年)에 통신사 행렬에 별화원(別畫員) 자격으로 참여했다. 최북은 여행의 의의를 천하의 기문(奇聞)과 장관을 구경함으로써 넓고 큰 천지를 확인하는데 두었다. 그 의증을 포착한 이현환은 재능이 출중한 화가에게 괴기한 구경거리가 많은 일본을 구경하도록 하늘이 마련해준 절호의 기회라며, 이야말로 천고의 쾌사(快事)라고 치켜세웠다.

두 송서는 해행에 참여하기를 기피하지 않고 반겼다는 점에서 상식과는 상반된 태도다. 이렇게 해행을 장유(壯遊)와 기유(奇遊)의 기회로 삼으려는 태도도 존재할 이유가 분명하였다. “천하제일의 장쾌한 여행을 하니

24) 李好閔, 『五峯集』 권7, 「送呂參議祐吉回答日本國序」, 문집총간 59집.

25) 曹文秀, 앞의 글.

26) 柳夢寅, 『於于集』 권1, 문집총간 63집.

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사업이다”²⁷⁾라고 인정하며 적대감과 이념만이 해행의 정서가 아님을 드러냈다. 그 태도가 구체화되어 해행에 참가한 시인과 화가 가운데 몇몇은 일본 산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여 돌아오기도 하였다. 남들은 구경하지 못한 낯선 타국의 이국적 풍경의 감상은 예술로 승화되어 적지 않은 문학작품과 회화작품이 남아 있다.²⁸⁾

남용익(南龍翼)은 시와 그림으로 묘사한 일본 풍경을 『부상시화첩(扶桑詩畫帖)』이란 서화첩으로 제작하였다. 이 시화첩을 평가하며 이경석(李景奭)은 “시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림까지 그리게 하여 마치 저들 강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듯하다. 삼신산은 우리나라에 있거늘 어째서 왜국의 형승을 소재로 취한단 말이나?”²⁹⁾라고 하여 남들로부터 받을 비난을 염려하였다. 일본 풍물을 감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증오와 적개심이 부재한 자로 비판당할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익(李穡, 1681-1763)이 최북에게 준 송시에서 모자라고 게을러 장관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자기에게 일본 풍경을 그려서 보여달라고 부탁한 것처럼³⁰⁾ 시기를 한정할 필요 없이 낯선 풍경의 감상은 해행의 중요한 의의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국적 풍물의 체험에 의의를 두는 것은 외국여행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해행에서는 그 의의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 중국 사행에서도 풍경의 감상은 중요한 의의의 하나로 간주된다. 중국의 풍경에는 자연풍광도 포함되지만 도시나 고적, 시장과 인물 같은 인문적 풍광이 주도적이다. 반면 일본은 주로 바다의 풍경과 산천이 중심이다. 물론 일본의 화려한 도시풍물과 시장, 문물 등을 다룬 시와 사행록도 없는 것은 아니나³¹⁾, 일본인과 그들의 문화가 개입할 여지를 많이 남겨놓지 않았다. 인문적 요소가 배제된 산천은 증오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도

27) 趙裕壽, 『后溪集』 권8, 「送通信使洪士能致中序」, 55집. “辦天下第一壯遊, 此眞男子事也.”

28) 일본에 다녀온 수행화가들이 남긴 회화작품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홍선표, 「조선 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 활동」, 『미술사학연구』(1998), 187-204쪽 참조.

29) 李景奭, 『白軒集』 권32, 「壺谷南知申扶桑詩畫帖跋」, 문집총간 96집. “或曰: ‘詩之而不已, 又從而畫之, 若好其江山之美. 三山在我國, 胡倭國之形勝是取哉?’”

30) 李穡, 『星湖全集』 권5, 「送崔七七之日本」 제3수, 문집총간 198집.

31) 대표적으로 일본의 풍경을 경탄과 경이의 공간으로 묘사한 南玉의 사행시문을 들 수 있다. 윤재환, 『日觀詩草』를 통해 본 秋月 南玉의 일본인식,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 인식과 그 전환의 단초』(문예원, 2010), 391-412쪽.

될 영역이다. 사람은 미워도 그 사람이 사는 산천은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일본인은 증오하지만 일본의 산천은 즐겨도 괜찮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일본의 산천을 즐기는 것에 힘을 실으면 실을수록 그것은 역으로 일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희석됨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IV. 적대적 시각:

감정적 대응과 복수설치(復讐雪恥)의 의식

1.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

일본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임란 이후 고착화되었다. 일본의 재침에 대한 경계심은 시대의 추이에 따라 줄어들었으나 적개심과 감정적 대응은 강화되는 측면까지 나타났다. 임란 이후 100년이 지난 1719년 정사 홍치중(洪致中)을 보내는 송서에서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이 보인 태도를 보면 그 같은 감정적 태도가 지식인 사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글에서 원수의 나라인 일본과 부득이해서 통호(通好)하기는 하나 그들은 간교하므로 국교(國交)를 정식으로 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사신이 억지로 외교에 임하는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화려하게 치장하고서 저들과 기예를 겨루는 작태를 개탄하였다. 사절단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놓고 이하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타깝게도 전후의 사신들은 많이들 (부득이한 외교임을) 생각하지 않고 사신과 연관된 일 외에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옛사람의 처신을 실천하지 못한다. 무게가 있다고 칭송받는 자들조차도 이런 들뜬 풍습을 통렬하게 자제함으로써 후배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옛날 전겸익(錢謙益)이 명나라 학사들에게 가볍게 조선 사람들과 시문을 주고받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우리 조정의 사대하는 예법과 동방 사신의 중화를 사모하는 정성으로도 중국인은 이렇듯이 의심하였다. 그러니 갖가지 기만과 간계를 꾸미는 섬 오랑캐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사신으로 가는 자는 마땅히 어디에 힘써야 하는지를 알리라!³²⁾

불공대천의 원수인 일본과 형식적인 최소한의 외교 활동은 어쩔 수 없이 해도 시문을 주고받고 친분을 맺는 인간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다. 그는 '사신과 연관된 일 외에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옛사람의 행동을 거론하여 통신사의 정사에게 그렇게 실행하라고 강하게 당부하였다. 그 같은 행동은 청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 실제 행해졌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를 극도로 증오하여 북경에 가서도 외교적 행사 외에는 저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최소한의 외교행위만 할 뿐 외교관 사이의 인간적 친분을 맺는 일이 없었다. 조선에 적대적 행위를 가한 청나라와 일본에 똑같은 외교적 행위를 요구하여 같은 방식을 일본에도 적용하라고 주문하였다.

이하곤의 요구는 이 시기에 외국과 사절을 오고가는 데서 의리와 적개심의 감정적 대응이 고조된 현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조선 지식인의 대일인식은 대청인식과 맞물려 표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³³⁾, 남북의 두 오랑캐에게 중화(中華)와 소중화(小中華)가 침략당하고 굴욕을 당한 피해의식은 이같이 최소한의 소극적 외교로 대응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이념적 우월성에 기반하여 일본과는 최소한의 소극적 외교를 해야 하며, 야만의 나라와 통교하는 방식은 대등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의리로 계몽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경한 지식인들은 주장하였다. 홍치중과 함께 종사관으로 다녀온 이방언(李邦彦)에게 준 송서에서 김민택(金民澤, 1678-1722)은 화이론(華夷論) 시각을 적용하여 가장 교활한 오랑캐인 일본을 의리(義理)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김민택은 투철한 의리론을 견지한 김춘택(金春澤)의 동생이다. 또한 그는 강성하고 부유한 일본을 제압하려면 사신은 무엇보다 자신의 강대지기(強大之氣)를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590년 김성일(金誠一)은 그렇게 못하고 유약하게 대처하여 임란을 불러들였다고 비판하였다.³⁴⁾ 그들의 태도에는 노론의 당파적 입장도 개입되어 있다.

32) 李夏坤, 『頭陀草』 책15, 「送日本上使洪士能致中序」, 문집총간 191집. “惜乎! 前後使者, 多不慮此, 使事外不交一言, 不能如古人之爲. 間或有以簡重欄者, 亦不能痛斷浮夸習, 爲後來則也. 昔錢虞山戒皇朝學士, 勿輕與東人酬答. 夫以我朝事大之禮, 東槎諸公慕華之誠, 中州人尙疑之如此, 況島夷詭詐百出者乎? 然則今日爲使者, 當知其所當勉也耳矣.”

33) 한명기, 앞의 글.

34) 金民澤, 『竹軒集』, 「送李從事美伯邦彦使日本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간본.

2. 일본정벌 대비책 강구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임란에 대한 복수를 추진하는 방책과 일본의 재침공에 대한 대비책의 두 가지로 확장되었다. 일본에 대한 복수의지를 드문드문 표시해온 지식인들이 적지 않았는데 김민택은 송서를 통해 그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방언을 보내면서 그는 “뒷날 군사를 몰아 바다를 건너 적의 소굴을 소탕함으로써 우리의 왕릉을 파헤친, 만세토록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를 제거하는 쾌거는 반드시 이방언의 이번 사행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³⁵⁾라고 기대하였다. 일본을 정벌하자는 전제하에 정벌의 계기를 통신사가 만들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는 임란이 종결된 지 120년이 지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적개심과 복수심이 점차로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였다. 1719년 통신사 부사로 가는 황선(黃璿)을 보내는 송서에서 그는 다시 일본에 대한 복수의 실현을 부사에게 토로하였다. “오늘날 사대부들 가운데 복수와 설치(雪恥)의 의리를 말하는 자가 곧잘 정축(丁丑)년을 말할 뿐 임진년을 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존주양이(尊周攘夷)가 조종의 능묘를 파헤친 원수보다 더 커서인가?”³⁶⁾라며 임란에 대한 복수와 설치의 관념이 느슨해진 현상을 비판하였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은 갈수록 더해가는 반면 일본에 대한 복수심은 약화되는 현상의 요인을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사신으로 가는 기회에 복수 설치와 재침공에 대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무역하고 예물을 서로 교환하니 나라의 수치가 아닌가? 게다가 왜놈은 교활하고 간사하여 믿을 수 없으니 뒷날 임진년처럼 뱀 돼지의 난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그렇다면 왜놈에게 사신으로 가는 모든 이들은 옛 원수를 잊지 말고 뒤에 일어날 난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³⁷⁾

35) 金民澤, 위의 글. “卽異日驅兵超海, 掃蕩窟穴, 以雪我陵墓萬世必報之讐者, 其必兆乎美伯之茲行.”

36) 金民澤, 앞의 책, 「送黃聖在璿使日本序」. “今之士大夫之能言復雪之義者, 輒言丁丑, 而不言壬辰者, 何哉? 旣尊周攘夷有大於朝宗陵寢之讐耶?”

37) 金民澤, 앞의 글. “抑互市相交, 玉帛相將, 豈非國之恥乎? 而況倭夷狡詐不可信, 又安知他日不作蛇豕之亂如壬辰也. 然則凡爲使於倭夷者, 毋忽前讐, 毋忽後難.”

그 역시 이하곤처럼 일본과 무역하고 외교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고 임진년의 원수를 잊지 말고 재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송서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언사를 써서 증오감을 보이고 이어서 일본을 침공하여 복수하지는 적개심으로 귀결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복수의 구체적 계획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송서의 형식이 그 안을 담을 수 없는 까닭도 있다. 복수의 당위성을 제기하는 차원에 머문 경우가 다수다.

일본에 복수하지는 의견을 제시한 글 가운데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송서가 독특한 사유를 보여준다. 그의 송서는 엉뚱하게도 일본으로 간 백제왕자 풍(豐)의 사적과 신라가 왜를 업신여기고 심지어 왜를 침공하여 승리한 역사를 상기시킨다. 그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신응(神應) 22년에 신라 군대가 아카시우라(明石浦)에 침입하였는데 이 포구는 오사카로부터 100리 떨어져 있다. 일본인이 군대를 풀어줄 것을 애걸하여 백마를 잡아 맹약을 했다. 지금 아카마가세키(赤間關) 동쪽에 백마 무덤이 있다고 한다. 일본은 깊은 바다로 에워싸여서 외국 군대의 침공을 받지 않는다. 원나라가 대거 침략했어도 겨우 이키 섬(日歧島)에 이르렀다가 끝내 대패하였다. 역대로 깊숙이 침입하여 승리를 거둔 자는 오로지 신라뿐이다. 동방을 8등분하여 신라와 백제는 그 셋을 차지하는데 다 좁은 땅덩어리로 혹은 은혜를 베풀어 동맹을 맺고 혹은 위세로 제압하기를 이렇게 달리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팔도를 차지하여 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임진년에 불에 덴 것이 혹독하였다. 강화를 맺은 지 200년이 되어 왜관에 후히 베풀어주고 풍성하게 선물하여 해마다 신라 옛 땅의 절반을 소비하건만 일언반구가 조금이라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불쑥 의심하고 분노하며, 공갈과 협박이 번갈아 이른다. 그러면 우리는 헐레벌떡 떠받드느라 정신이 없다. 신라와 백제 사람들이 행한 것과 비교하면 슬프다. 아! 이것은 우리 조정 사대부의 수치다.³⁸⁾

신경준은 역사학과 지리학에 깊은 식견을 발휘하여 일본을 잘 회유한 백제와 그들 내지를 침공한 신라의 사례를 들고 있다. 신라 군대가

38) 申景濬, 『旅菴遺稿』 권3, 「送使之日本序」, 문집총간 231집. “日本神應之二十二年, 新羅兵入明石浦, 浦距大阪纔百里, 日本人乞和解兵, 刑白馬以盟. 今赤間關之東, 有白馬墳云. 日本環以重溟, 外兵莫加, 胡元大舉, 塵至日歧島而卒大敗, 歷代能深入取勝者, 惟新羅而已. 八分東土, 羅濟有其三, 儘編小爾, 或以恩結, 或以威制, 乃如是異哉! 今我國奄有八區, 庶不畏人, 而龍蛇之芻蕘矣. 講好歷二百年, 箝響之厚, 賂遺之豐, 歲費新羅舊壤之半, 而一言隻字, 少不合意, 則疑怒輒生, 恐嚇交至. 我方惴惴焉奉承之不暇, 其視羅濟人攸爲, 哀哉! 噫! 此我朝廷士大夫之羞也.”

오사카 깊숙이 침공한 사적은 일본 역사에 등장하고 17세기 초반 이래 조선의 역사가들이 주목했던 사적이다.³⁹⁾ 임란의 참상을 겪은 조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과 뚜렷하게 대비시킨다. 백제나 신라보다 더 큰 나라인 조선이 과거보다도 외교와 군사 양면에서 모두 뒤떨어진다는 뼈아픈 반성을 앞세운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조선이 일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제시한 것이다. 글의 뒷부분에 사신에게 아카마가세 키를 지나가게 되거든 반드시 백마(白馬)의 무덤을 찾아가 보라⁴⁰⁾고 한 이유도 옛 역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키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신경준은 그 주장을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신의 임무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제안하고 있다. 저들의 국정과 풍속을 살피고, 기후와 산천의 형세, 지방의 도리와 물산과 기계, 그리고 중국보다 나은 문물이 있는지 그 나라만의 특별한 실체를 파악하라고 하였다. 그것이 저들과 외교하는 도리이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자 우리의 지혜를 넓히는 길이라고 하였다.⁴¹⁾ 신경준은 상당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일본과 외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신라처럼 일본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대책도 강구하면서 백제처럼 일본과 협력하는 대책도 제시하였다. 다른 학자에 견주어볼 때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대응책이다.

신경준이 일본의 기후와 산천, 지리를 파악할 것을 사신에게 요구한 것은 일본을 정벌할 기회를 대비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임란에 대한 복수로 일본 정벌을 꿈꾼 것은 마치 삼전도 치욕을 보복하고자 북벌(北伐)을 추진한 것과 비교된다. 임란 이후 사대부들에게 북벌과 함께 일본 정벌의 욕망과 대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송서는 분명히 보여준다. 북벌론처럼 현실화하지 않은 소망이었을지라도 적개심이 그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 정벌의 욕망과 대책이 그렇게 의식 저변에 잠복한 사실은 다른 지식인에게서도 발견된다. 이현환은 흥계회를 따라갔던 최북에게 화가의 솜씨를 발휘하여 일본 지도를 세밀하게 그릴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39) 그 내용은 1617년 회답사 종사관으로 일본에 간 李景稷이 『日本年代記』에서 확인하고 돌아와 조선에 널리 퍼졌다. 安鼎福은 『順菴集』 권1, <觀東史有感> ‘白馬塚行’에서 같은 사실을 읊었다.

40) 申景濬, 앞의 글. “行過赤間關，必訪白馬墳，而且問輝元之後，尙不替也否?”

41) 申景濬, 앞의 글.

산천과 지리를 지도로 그려 와서 뒷날 발발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자고 하였다. “한편으로 여가에 몰래 산천과 인물, 성지(城池)와 기계를 그려서 돌아오게. 뒷날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수비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면, 자네의 세 치 붓이 나라를 반석보다 무겁게 만들어 나라를 지키는 용도로 쓰일 것이다”⁴²⁾라며 국방용 지도 제작을 권하였다. 일본 지도는 수비대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정벌의 대비책이기도 하다.

일본의 지도를 그려 오라고 권유한 사례가 몇 가지 더 보이는데 사신이 화공을 대동하고 외국에 나가는 관례를 언급한 것은 대개 앞서 언급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⁴³⁾ 상대국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려는 의도다. 그러한 요구가 일본에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싹쓸 들은 것까지 채록하고, 산천과 도리(道里), 인물과 풍속, 전부(田賦)와 병제(兵制), 관질(官秩)과 율령(律令)을 명료하게 파악해 기록한 『화국지(和國志)』의 저술로 승화되었다고 지식인들은 이해하였다.⁴⁴⁾

V. 일본과의 화해와 문명적 접근

1. 병자호란 이후 적대적 태도의 추이

김민택의 송서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의지가 약화되는 현상과 청에 대한 증오보다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증오가 약화되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선조를 계승한 광해군이 난정(亂政)으로 복수의지를 약화시킨 반면, 인조를 계승한 효종이 복수를 천명한 효과라는 논리로 이유를 설명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의 북벌론과 대명의 리론(大明義理論)이 청에 대한 복수의지를 강화시켜 그와 같이 강화된

42) 李玄煥, 앞의 글. “且其暇也, 潛畫其山川人物城池器械而歸, 以爲我國他日戰守之機宜, 則子之三寸之管, 可使國重於鼎呂, 而亦爲干城之用矣.”

43) 李景奭, 앞의 글. “余曰: ‘否否. 書曰惟懷永圖, 是圖也豈專取其一崢一泓一城一島之勝概哉! 見之者徒見其畫之爲畫, 不思其所以畫之之意, 則雖謂之取其形勝可也, 獨不聞夫古昔華人之使外國者, 挾畫工而行, 圖沿路之山川者乎? 且於籌邊樓上所圖畫者何意也?’”

44) 李肇源, 『玉壺集』, 「和國志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사본. 1764년 계미통신사의 서기 元重舉가 저술한 『和國志』의 이 서문은 원저에 수록되지 않아 지금까지 학자들이 활용하지 못한 새 자료다.

이념을 유지시켰다고 보았다.⁴⁵⁾ 그의 해석에는 당파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노론 당파에서 기왕의 사대(事大) 관념을 대명의리론으로 전환하여 강화함으로써 정국을 장악하는 정치이념으로 정착시킨 현상과 부합한다.

김민택의 지적처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분명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희석화된 측면이 있다. 또 세대 교체와 평화의 지속, 경제발전 등의 요인으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어 발생한 당연한 추세이기도 하다. 그것은 한편으로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결과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는 일본에 대해 감정적 반감을 자제하고 일본을 냉정하게 정탐하고 그들의 문화를 관찰하며, 심지어 저들의 우수한 기술과 문명을 배우자는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었다.

일본에 대한 이런 유화적 태도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무력해졌다고 보는 시각의 확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하나의 사례를 보면, 정조·순조 연간에 최고위직을 역임한 서영보(徐榮輔, 1759-1816)는 일본에 대한 방어를 책임지는 삼도수군통제사를 보내는 송서에서 임란과 병자호란 발발 이후의 대책을 거시적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 그 글에서 임란 전후 강성했던 일본의 군사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통신사를 요청하지 않는 것을 증거의 하나로 들었다. 그 판단을 근거로 하여 청나라에 우선적으로 대비하자고 말했다.⁴⁶⁾ 그의 언급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나라와 일본에 대한 외교와 국방의 문제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의 논법은 일부 지식인들에게 조선의 국방에서 주적(主敵)이 일본에서 청나라로 바뀐 현실을 보여준다. 청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약화된 일본에 대한 태도가 일본을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송서에는 그런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일본과의 이성적 대화

18세기 중후반의 북학파(北學派)가 청나라를 야만시하는 대명의리론

45) 金民澤, 앞의 책, 「送黃聖在璿使日本序」.

46) 徐榮輔, 『竹石館遺集』 권2, 「送人序」, 문집총간 269집.

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냉정하고 실리적인 자세로 외국과 교류하자고 주장하였다. 그와 비슷하게 일본에 대해서도 감정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성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지식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⁴⁷⁾ 임란의 상흔으로부터 멀어지고, 시대의 진전에 따라 지식인들 사이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수가 늘어났다. 1655년 남용익을 일본에 보내면서 신혼(申混)은 전혀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본에 직접 가서 지식인들과 친밀하게 교류한 체험을 지닌 이들에게서는 이런 태도가 더 잘 나타난다. 일본에 가서 큰 활약을 하고 돌아온 홍세태(洪世泰, 1653-1725)는 1711년 종사관 이방언을 보내는 송서에서 특별히 부탁할 말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다만 중숙(重叔, 이방언의 자)에게 한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옛날 손화보(孫和甫, 孫觀)가 금나라에 사신 갈 때 한위공(韓魏公, 韓琦)에게 가르침을 청했더니 한위공은 오랑캐라고 하여 비루하게 여겨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위공의 이 말씀은 오랑캐에 사신으로 가는 자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물고기나 짐승처럼 취급하여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는데 이는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수천 리 땅을 가진 일본인데 제대로 된 인물이 하나도 없겠습니까?⁴⁸⁾

일본을 증오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이방언만은 일본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일본과 일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감정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우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비교적 냉정하게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을 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잘못된 태도와 인식에서 과생되는 부작용의 하나로 시문의 수창을 들었다. 조선 사람은 일본인의 지식과 창작의 수준을 무시하지만 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자칫하면 무시당한다고 경험을 말했다. 일본인들이 겉으로는 우리를 공경하고 삼가지만 속으로는 냉혹하게 평가하는

47) 이성적 대화는 임형택 교수의 「동아시아 삼국 간의 '이성적 대화'에 관한 성찰, 『한문학보』 26집, (2012), 129-163쪽에서 논의되었다.

48) 洪世泰, 『柳下集』 권9, 「送李重叔往日本序」, 문집총간 167집. “顧於重叔有一說焉. 昔孫和甫使虜中, 請教于韓魏公, 公曰勿以爲夷狄而鄙薄之. 魏公此言, 使蠻夷者, 不可不知. 我人之於日本, 鱗介畜之, 卽無論事大小, 略不加意, 此甚可懼. 夫以日本數千里之地, 而豈無一人.”

실상을 들어 그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다.⁴⁹⁾

홍세태는 시문의 수창을 사례로 들어 일본과 일본인을 무시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보다 후배 세대로서 1764년 일본에 서기(書記)로 다녀온 성대중(成大中, 1732-1809)도 우리가 되놈이니 왜놈이니 멸시하는 청나라와 일본의 인간됨이 우리보다 못하기는커녕 도리어 나은 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 사람이 일본인은 교활하다는 통념을 갖고 저들을 멸시하는 습관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⁵⁰⁾ 일본과 청나라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외국과 건설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표명한 것이다. 임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집단 의식으로 굳어진 증오와 적대의 감정을 극복하고 객관적이고 실리적인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조선 지식인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준다. 홍세태나 성대중은 모두 일본에 가서 그곳의 명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한 경험이 있기에 설득력을 지닌다.

그와는 달리 고위관료를 지낸 최창대(崔昌大, 1669-1720)도 1711년 신묘통신사의 정사 조태억(趙泰億, 1675-1728)을 보내며 쓴 송서에서 먼 나라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정의라고⁵¹⁾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웃나라와 외교에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 우리나라가 백년 원수관계를 풀고 사신을 보내 위문하고 이웃과 우호를 맺으려 하니 우리 힘으로 저들을 도륙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보듬는 덕을 보이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조정의 대책회의나 사대부의 언론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들을 비루하다고 배척하여 거의 뱀이나 전갈, 여우나 쥐처럼 여겨서 반드시 교활한 왜놈이니 더러운 종자니 말한다. 사명을 받들어 그 나라에 이르러서는 문장과 무용(武勇)으로 저들보다 뛰어난 자랑하기도 하고, 은밀히 사건을 염탐하는 것을 능사로 여겨서 하나같이 남을 덕으로 복종시키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서 저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좋아하여 따르기를 기대하겠는가? 지금 자네가 명망이 높아 잘 선발되어 문서와 폐물을 가지고 사명(辭命)을 받들었다. 그러니 물건을 갖추어 예를 드리며 국가의 덕을 베푸는 뜻을 넓게 베풀어야 한다. 저들도 사람이라 군신이 있고 부자가 있다. 부여받은 품성과 호오(好惡)의 감정은 분명 우리와 똑같다. 따라서 공자께서 “가르칠 뿐 부류가 없다”고 하셨고, “오랑캐 땅에서도 시행할 만하다”고 하셨던

49) 洪世泰, 위의 글.

50) 成大中, 『青城集』 권8, 「書金養虛杭士帖」, 문집총간 248집.

51) 崔昌大, 『昆侖集』 권6, 「送趙大年奉使日本序」, 문집총간 183집.

것이다. 진실로 문명국으로 대우해주면 저들도 우리를 문명국으로 대우할 것이고, 친척으로 생각하면 저들도 우리를 친척으로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지금 뱀이나 전갈, 여우나 쥐처럼 저들을 취급하고서 우리를 문명국이나 친척으로 여기도록 요구한다면 너무 틀린 것이 아닌가!⁵²⁾

최창대는 일본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우호적 태도로 상대에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간의 보편적 품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을 덕으로 감화시키는 외교를 앞세우라고 하였다. 문장이나 붓글씨와 같은 기예를 발휘하여 일본인의 탄성을 자아내고, 용맹함이나 활쏘기 같은 기술을 우리의 위력으로 과시하며, 일본의 실상을 염탐하는 것은 외교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님도 강조하였다.⁵³⁾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 말고 성의를 갖고 대하면 저들도 조선에게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최창대의 견해는 차분하고도 이성적인 외교적 접근 태도를 보인다.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인 지식인이 그렇지 않은 지식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여론을 주도하는 최상위 지식인들이 보여준 견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3. 무력(武力)에서 문화(文化)로 일본의 변화 유도 책략

일본을 이성적 대화와 외교의 상대로 간주하지는 지식인들의 의도에는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이 깊숙이 깔려 있다. 여론 주도층은 임란처럼 일본이 다시 침공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몹시 강했다. 국내적으로 술한 대비가 진행되는 한편, 해행이 있을 때마다 우려와 대비책은 동시대에 제기되었다. 조선에서는 일본인들이 문화를 숭상하지 않고 무력을 숭상하여 칼을 잘 쓰고 잔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이 전투하기를 좋아하고 병력의 강성함을 자신할 때 재침할 가능성을 염려하였다.

52) 崔昌大, 『昆侖集』 권6, 「送趙大年奉使日本序」, 문집총간 183집. “至於交隣國之道, 有大焉. 夫國家所以置百年之讐, 通使問而講隣好, 豈不曰吾既力不能誅之, 則惟有來之以德云爾耶. 然竊嘗聞於廟朝之謨畫·士夫之言論, 鄙斥其人, 殆若蛇蝎狐鼠然, 必命之曰狡倭也, 曰醜種也. 奉使而至其國, 則或以文詞武勇相高, 或以詞得陰事爲能, 類不爲以德服人之圖. 夫如是而可幾其欽悅而從化耶? 今子負雋望, 膺妙簡, 執書幣而奉辭命, 亦將以備物致禮, 宣揚國家之德意也. 彼亦人耳, 有君臣焉, 有父子焉. 其性術之稟, 欲惡之情, 其必有與我同者, 故曰有教無類, 曰蠻貊之邦可行也. 誠以齊魯待之, 則彼亦齊魯於我矣; 以親戚視之, 則彼亦親戚於我矣. 顧在所感之如何耳. 今以蛇蝎狐鼠畜之, 而責其齊魯親戚於我, 不已左乎!”

53) 崔昌大, 위의 글.

그러면 일본이 무력을 포기하고 문화를 선택할 경우 재침의 가능성이 줄어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연스럽게 일부 지식인들은 저들을 무를 버리고 문에 빠지게 함으로써 전쟁을 일으킬 싹을 제거하도록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비무장의 일본으로 유도하는 책략은 임란 이후 지식인들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식(李植, 1584-1647)은 일본이 불교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살육을 좋아하므로 불교는 소용이 없고 요순(堯舜)의 도로 그들을 교화함으로써 평화의 시대가 정착되기를 소망하였다.⁵⁴⁾ 그의 후배 세대인 남인 정치가 허목(許穆)도 일본의 유교문화 수용을 ‘만이(蠻夷)의 성사(盛事)’라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⁵⁵⁾ 조선의 사상적 근간인 유교를 일본에 확산시키는 것은 일본의 비무장을 유도하는 책략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본의 용하변이(用夏變夷)를 유도한다면 외교의 목적은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유교의 확산으로 일본이 무력을 버리고 문화를 사랑하는 쪽으로 심성을 바꾸면 조선을 침공하지 않으리라는 관점은 이후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 면면히 이어졌다. 이익은 일본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다양한 견해를 제출하였는데 그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 입장에서 일본관계를 인식하고 평화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펼 것을 주문하였다.⁵⁶⁾ 이익의 관심은 동래로 일본 사신을 접대하러 떠나는 족손(族孫) 이재후(李載厚)를 보내는 송서에 잘 드러난다. 무력을 행사한 지가 오래된 일본이 이제는 평화를 바라고, 무기를 잡던 자들이 붓을 잡고 시문을 창작하려 하는 변화가 감지된다고 하였다.⁵⁷⁾ 이익은 다음과 같이 기대하였다.

그 말류에 이르러서 오로지 문장 솜씨로 인재를 취하면 저들은 창자를 후벼내고 입술을 오물거리려 동시대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려고 인달이 날 테니 어느 겨를에 무력에 힘을 기울이겠는가? 지혜를 잘 이용하는 자는 사태가 싹트기 전에 난리를

54) 李植, 『澤堂集』 권9, 「送金學士世濂使日本序」, 문집총간 88집.

55)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혜안, 2006), 224-225쪽.

56) 하우봉, 위의 책, 225-231쪽.

57) 李漢, 『星湖全集』 권51, 「送元博正言接慰倭使序」, 문집총간 199집. “彼亦不用兵久矣, 琵琶形局, 外亂不入, 戰伐之事既息, 安逸之心必長, 一文一武, 互爲乘除, 故稍自厭殺崇儒, 操觚摘翰以爲能, 往往脫剝, 喉嚨強呻, 爲村秀才佔畢語, 其得我人詩文雜篇, 必寶藏而慕效之, 此最消息之好者, 有能於此時, 因以張大之, 用黼黻清文, 振作而風動之, 佇見其鼓舞革變, 家戶鉛槧, 勢有所不可已也.”

막고 쓸모없는 물건도 유용하게 사용한다. 이른바 사람을 활과 창으로 공격하지 않고도 환난을 물리치고 분란을 해소하는 실질이 있다는 것이다.⁵⁸⁾

일본이 문학과 예술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무력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문화에 강점이 있는 우리가 유도하지는 주장이다. 조선이 유학과 문학에 힘써 과거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무력은 약해졌다는 관점을 일본에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일본이 문화를 사랑하면 무력을 포기할 것이라는 견해는 상당히 소박한 생각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허목, 이익 등을 포함하여 남인 지식인들 사이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로 확산되었다. 이익의 집안사람인 이현환이 최북을 일본에 보내면서 쓴 글에서도 거의 비슷한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화가인 최북에게 그림 솜씨로 저들을 문약(文弱)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라고 요구하였다.

왜인이 찾아와 그림을 청하거든 바람처럼 소매를 떨치고 마음대로 붓을 휘둘러, 법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새 뜻을 만들어내고, 호방하면서도 신비함을 붙여넣게. [...] 저 왜인들이 그림에 뜻을 둔다면 반드시 그림에 빠져 국사를 망각하는 화를 초래할 걸세. 또 목숨을 걸고 그림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군자가 걱정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되레 온 나라의 보물을 받들어서라도 그림 그리기를 사모하고 본받고자 전정하는 걸 잊을 것이요 유행을 따르기에다 겨를이 없을 테니 무력을 다룰 여지가 있겠소?⁵⁹⁾

일본에 가서 화가로서 최선을 다하여 일본 사람들을 매료시키라고 주문하였다. 그림에 탐닉하는 순간 일본인들은 전쟁을 일으킬 욕구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용도 앞서 이익이 쓴 글과 비슷하지만 사고방식이 완전히 비슷하다. 이익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이익의 영향을 받은 정약용(丁若鏞) 역시 두 편의 「일본론(日本論)」에서 “일본은 현재로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첫 번째

58) 李瀼, 위의 글. “至其末流, 專以詞華取人, 則亦將搢擢胃腎, 締繪吻舌, 祈中時好之不暇, 顧何有於武力之競也. 善用智者, 弭難於未萌, 而無用之器, 不害爲有裨. 所謂攻人不以弧矛, 而有排患解紛之實也.”

59) 李玄煥, 앞의 글. “倭人有來而求畫者, 奮袂如風, 縱筆揮霍, 出新意於法度之中, 寓深機於豪放之外. [...] 苟使彼倭者, 留意於此, 則亦必招走衎復壁之禍矣. 又有輕死生之心, 不趨若君子之爲患, 而反將奉一國寶莊, 而慕效之, 忘心於戰伐之事, 祈中時好之不暇, 顧安有武力之競也?”

글에서 일본이 조선을 재침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의 근거를 무력을 숭상하지 않고 문물이 발전했다는 문승(文勝)에 두었다. 일본 학자들의 저작 수준이 매우 높아 그들이 이미 문승한 수준에 올랐고, 직접 교역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수입한 결과 전쟁을 스스로 억제할 능력을 가졌다고 보았다.⁶⁰⁾ 이렇게 조선 후기 남인 지식인들은 일본의 재무장을 방지할 대책의 하나로 일본의 유교화·문화화라는 책략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송서에는 그러한 인식이 논리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4. 일본 문물의 수용

일본에 대해 냉정함과 이성을 갖고 대할 것을 요구한 지식인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태도는 후대로 올수록 더 설득력을 얻었다. 그 태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에서도 배울 것은 배우자는 주장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조선과 일본 관계에서 일본을 극복하려면 그들의 장점을 배워야 옳다는 주장이다. 임란 직후에 일본을 방문한 통신사 일행은 일본의 발달한 문물에 충격을 받아 그 실상을 서술하기 시작하였다. 실상을 이해한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의 야만적 실체와 발달한 문물을 분리하여,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 실례로 『해유록(海遊錄)』에서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한 신유한(申維翰)은 그들을 치밀하게 관찰한 결과 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보다 나은 문물은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홍계희를 일본에 보내는 송서에서 자주 법령을 바꾸어 천하를 위기에 몰아넣은 중국에 비해 법령이 안정되고 체제가 잘 정비된 일본이 더 낫다면서 통신사가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주문하였다.⁶¹⁾ 일본이 이룬 정치적 안정에 대한 분석과 인정은 그 이후 원중거의 『화국지』 「인물(人物)」조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일본에 다녀온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의 학문과 경제, 기술을 새롭게 인식하여 그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화국지』에서도 일본을 세밀하게 관찰하였고, 조엄(趙巖)은 『해사일기』에서 이용후생의 실용적 입장에서 일본의 지도, 수차, 배다리, 선박, 제언, 고구마 등

60) 김상홍, 「다산(茶山)의 일본(日本) 인식(認識)」, 『동양학』 46권(2009), 65-84쪽.

61) 申維翰, 『靑泉集』 권4, 「奉送通信正使洪公啓禧往日本序」, 문집총간 200.

다양한 정보를 기록해놓았으며, 일본 지도를 구입하여 모사하게 하였다.⁶²⁾ 일본의 학문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그들의 건축과 기술이 지닌 높은 수준을 인정하는 학자들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제가(朴齊家)로서 그는 『북학의(北學議)』에서 여러 차례 일본의 문명을 배워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였다.⁶³⁾ 이용후생과 더 나은 기술과 문명으로 발전할 것을 꿈꾸는 지식인들에게 점차 일본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이웃 나라로 인식된 것이다.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 그러한 인식이 크게 부각되었는데 정우용(鄭友容)이 1811년 마지막 통신사의 부사인 이면구(李勉求)를 배웅하며 준 편지 「통신부사 이교리에게 준 편지(與通信副使李校理書)」에 잘 나타나 있다.⁶⁴⁾ 이것은 송서(送序)라는 형식을 갖춘 문체보다 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펼친 편지글로서 글의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정우용은 이면구에게 일본에 가서 다양한 분야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라고 요구하였다. “한가한 틈을 얻으면 그 풍속을 묻고 우리와 다른 인물과 토산, 그리고 이로운 기용(器用)을 살펴 모든 것을 지나는 곳마다 기록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갖춰놓으시오 이는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이역지(異域志)』, 『도경(圖經)』 등의 저술이 왕정(王政)에 도움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⁶⁵⁾라고 하여 일본의 문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정우용은 일본 유학자의 학문적 성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바닷속 섬나라 오랑캐의 나라에 이런 학문을 하는 선비가 있을 줄 몰랐다.”⁶⁶⁾라면서 그들 학문의 우수성도 인정하였다. 민생에 도움을 줄 작품의 도입도 권유하였다. 그의 관점은 일본의 기술이 지닌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이르러 극에 달한다.

62) 김문식, 『조선 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새문사, 2009), 189-193쪽.

63)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주택(宮室)」, 『북학의』(돌베개, 2003), 66-70쪽.

64) 이종목, 「정동유(鄭東愈)와 그 일문(一門)의 저술」, 『진단학보』 110권(2010), 301-328쪽; 이종목, 「정우용이 통신사로 가는 이면구에게 준 글」, 『문헌과 해석』 51권(2010), 여름호.

65) 鄭友容, 『密巖遺稿』, 「與通信副使李校理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사본. “迨此閑暇, 詢其風俗, 咨其人物土山之異·器用之利, 皆所歷記而備考. 此寰宇記·異域志·圖經等書之有補於王政者也.”

66) 鄭友容, 위의 글. “不意海島之中·蠻貊之邦, 能有此學問之人也.”

또 저들 공장(工匠)의 기용(器用)이 지닌 편리함은 천하에서 최고입니다. 쇠를 가공하는 장인이 1수(銖)까지 정밀하게 나누어 커다란 수레를 도금하니 그 화려함이 사람의 이목을 휘둥글게 하며, 옷칠 장인은 한 치 길이의 손가락으로 한 자가 되는 넓은 것까지 칠을 하니 빛나고 매끈하여 거울처럼 비칩니다. 비용은 적게 드는데 그 효과가 이처럼 큼니다. 또 쇠를 불려 주물을 만드는 기술은 그보다 더 이상 교묘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검의 날카로움은 쇠나 옥을 자를 정도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막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대개 아랫 부분과 윗 부분을 가지런하게 나누고 담금질을 깊거나 얇게 적절하게 하니, 남에게는 전하지 못할 오묘함이 있습니다. 저 도검의 쓰임새는, 작게는 몸을 보호하여 해를 멀리할 수 있고, 크게는 적과 싸워 이겨 난리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물건입니다. 그래서 주(周)나라에서 축씨(築氏)나 야씨(冶氏) 등의 직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법을 배워 올 수 있다면 천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⁶⁷⁾

그는 일본의 도금과 칠기, 도검 세 분야의 기술을 사례로 들어 천하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그 비법을 배워 오라고 권유하였다. 18세기 중반에 이용후생학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중국의 우수한 문물을 배우자는 주장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일본을 배우자는 주장은 그리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우용은 일본의 기술이 최고라고 평가하고 해행 참여자에게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을 배우자는 주장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는 마지막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일은 학문에도 도움이 되고 백성과 나라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서둘 필요가 없다며 일만 만든다고 비웃는 자가 있다면, 이는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한가한 무리들의 견해일 뿐이니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⁶⁸⁾라고 하여 비판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67) 鄭友容, 위의 글. “且彼工匠器用之便利, 最於天下. 攻金之工, 以銖分鍍車輿之大, 而炫耀奪眼; 髹漆之工, 以方寸匙塗甚丈之廣, 而光滑可鑑. 其費少而其功多, 有如此矣. 又冶鑄之事莫巧, 而刀劍之利, 無不截金割玉, 經屢百年, 而如新發鏘. 蓋以分齊之上下·燒淬之淺深, 有不傳之妙故也. 夫刀劍之爲用, 小則衛身而遠害, 大則勝敵而定亂. 此有國之所須, 而周官之列築氏冶氏等職也. 苟有授其秘者, 斯可不吝千金耳.”

68) 鄭友容, 위의 글. “愚所云云之數件, 或咨於問學, 或裨於民國也. 有謂之不急晒其多事, 此悠悠之徒, 苟營目前之見也, 何足道哉.”

18세기 중후반 이용후생학파는 화이론의 이념적 족쇄를 벗고 기술문명이 발달한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들이 청나라를 보는 시각은 일본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의 문물에도 배울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배우자고 주장한 지식인의 계보와 그들의 주장은 이용후생학파의 선진문물 도입의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VI. 맺음말

조선시대의 외국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일본을 바라보는 조선 지식인의 시각은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식은 적대감과 증오감, 그리고 멸시감과 침략에 대한 두려움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용어는 조금씩 다르나 모두 전쟁의 트라우마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말할 나위 없이 임란이 끼친 상흔의 영향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 시기를 거쳐 그 시각이 주도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었던 엄연한 사실은 지나치게 묻혀버렸다. 이 글에서는 그 문제점을 부각시켜 거시적인 입장에서 임란 이후 조선 지식인들이 일본을 보는 시각의 다양한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시각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는 근거는 바로 통신사 사행의 일원을 보내는 송서(送序)다.

임란 이후 열두 차례 전개된 공식 통신사의 일원에게 준 송서는 현재까지 30여 편쯤 찾을 수 있다. 특별한 외교관의 여행은 그 의미가 남다른기에 송서에 적힌 내용은 일본을 보는 인식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 송서는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논리를 갖추어 일본에 가는 사신이 해야 할 일과 주문하고 싶은 사항을 밝히고 있다. 글을 쓴 지식인 대부분이 각 시기의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명사들이므로 그들이 밝힌 생각은 공허한 주장이나 단상 차원으로 낮춰서 볼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갖고 있어 각 시대 여론을 종합하고 여론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 중요한 논리이다. 실제로 일본을 다녀온 체험의 기록물인 해행록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외인식의 중요한 표출의 장이었다.

수십 편에 이르는 송서에 나타난 일본인식을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는데, 거의 300년에 걸쳐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두려움이 고착화된 측면이 있는 반면, 그러한 고착화된 인식을 감정적이고 소아병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대화와 일본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그들의 우수한 문물은 수용할 것까지 주장하는 지식인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일본이란 존재를 감정과 이성, 두려움과 극복의 두 가지 상반된 태도로 보는 경향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문식, 『조선 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 김상홍, 「다산(茶山)의 일본(日本) 인식(認識)」. 『동양학』 46권, 2009, 65-84쪽.
-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북학의』. 돌베개, 2003.
- 三宅英利, 『근세일본과 조선통신사』. 경인문화사, 1994.
- 손승철, 「사명대사와 한일관계」. 『강원사학』 제22·23집, 2008, 139-155쪽.
- _____,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지성의 샘, 1994.
- 손유경, 「慕齋 金安國의 對日認識」. 『漢文古典研究』 19집, 2009, 31-53쪽.
- 안대회, 「조선 후기 燕行을 보는 세 가지 시선-燕行使를 보내는 送序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9호, 2010, 87-121쪽.
- 윤재환, 「『日觀詩草』를 통해 본 秋月 南玉의 일본인식」.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 인식과 그 전환의 단초』, 문예원, 2010, 391-412쪽.
- 李元植, 『朝鮮通信使』. 민음사, 1991.
- 이중목, 「朝鮮前期韓日文士の文學交流の様相について」. 『朝鮮學報』 82호, 朝鮮學會, 2002, 121-155쪽.
- _____, 「정동유(鄭東愈)와 그 일문(一門)의 저술」. 『진단학보』 110권, 2010, 301-328쪽.
- _____, 「정우용이 통신사로 가는 이면구에게 준 글」. 『문헌과 해석』 51권, 2010, 여름호.
- 이채연, 「조선 전기 대일사행문학에 나타는 일본인식」. 『한국문학논총』 18집, 1996, 3-25쪽.
- 임형택, 「계미통신사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한국18세기학회 엮음, 『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 태학사, 2007, 37-63쪽.
- _____, 「동아시아 삼국 간의 '이성적 대화'에 관한 성찰」. 『한문학보』 26집, 2012, 129-163쪽.
- 장필기, 「조선 초기 栗亭 朴瑞生의 학문적 기반과 현실 대응」. 『韓國學論叢』 34집, 2010, 651-674쪽.
- 조규익·정영문 편,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전13권. 학고방, 2004.
-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 한명기, 「15-17世紀朝鮮知識人たちの日本認識概観」. 『鏡の中の自己認識-日本と韓國の歴史·文化·未來』, 東京: 御茶の水書房, 2012.
- 한태문, 「戊申通信使(1428)와 朴瑞生」. 『열상고전연구』 제29집, 2009, 139-168쪽.
- 홍선표, 「조선 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 활동」. 『미술사학연구』, 1998, 187-204쪽.

국 문 요약

이 글에서는 통신사 일원에게 준 송서(送序)를 분석하여 일본에 대한 조선 후기 지식인의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임란 이후 열두 차례 전개된 통신사에게 준 송서는 현재까지 30여 편을 찾을 수 있다. 송서는 분명한 논리를 갖추어 일본에 가는 사신이 해야 할 일과 요청하고 싶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글을 쓴 사람은 각 시기의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명사들이다. 따라서 각 시대 일본인식의 핵심과 추이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일반 사행록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외인식의 중요한 표출 도구였다.

송서에 나타난 인식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일본 사행을 특이한 여행의 하나로 의의를 두는데 이는 일본에 대한 증오감의 굴절된 표현이다. 둘째, 송서에 나타난 일본인식은 크게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대응과 이성적이고 문명적인 대응으로 나뉜다. 전자는 적대적 태도를 그대로 표출하고 일본에 대한 복수설치를 주장하는 논리를 펼쳤다. 후자는 일본과 건설한 외교관계를 지속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추구하며, 일본의 우수한 문물을 학습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송서는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투고일 2012. 9. 17.

수정일 2012. 11. 12.

게재 확정일 2012. 11. 20.

주제어(keyword) 海行(Maritime travel), 通信使(Chosŏn missions to Japan), 送序(Parting addresses), 壬辰倭亂(Hideyoshi invasion), 日本(Tokugawa Japan), 朝鮮後期(Late Chosŏn)